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 기출문제(인문계열 B형)

(가) 산전(産前)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와 관련된 결정의 책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운 증후군의 예를 들어 보자. 한때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는 게 운에 달린 일이었지만, 오늘날 다운 증후군을 비롯한 유전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운명이 좌우하던 영역이 이제는 **선택**의 영역이 되었다. 어떤 유전 질환이면 임신 중절 혹은 PGD(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서 문제 있는 배아를 착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질지 모르겠지만, 유전자 검사로 전에 없던 결정의 부담이 생겼다.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을지, 검사 결과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 낸 선택의 부담 자체를 피할 자유는 없다.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의 충동은 전염력이 있다. 스포츠에서든 부모 됨에서든 더 나아가 인간의 다른 경험 차원에서든 그 충동은 전염이 된다. 그냥 멀쩡하게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던 쪽을 한껏 유혹해 들어오는 바람에, 이쪽도 더는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던 자세를 버리고,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손을 쓰려고 하는 충동을 갖게 된다. 능력 강화제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약제를 쓰지 않는 선수들은 자신을 ‘할 일을 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 검사가 임신 중에 늘 하는 일이 되면 검사를 하지 않는 부모는 ‘할 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모로 치부될 것이고, 혹시라도 아이에게 유전학적 결함이 발견되면 미리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나)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 임에 틀림 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 이 시계는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편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 대 흥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사변, 삼팔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이다. (...)

벌써 육 개월 전의 일이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행뎡그런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아 쪽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물골이나 엷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뻥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켜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뻣뻣지 못할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의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 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 치료만 하

여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뻣뻣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둘러보았다. (...)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보는 일이 없는 그였다. (...)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땀방울을 거둬 부르짖었다. (...) “미국에 가셔의 모든 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 ‘홍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싸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구,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다) 과학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정체성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을 때 (...) 그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시간 변하고 있다.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해 인간의 머릿속은 항상 변화한다. 이전에 저장된 기억 위로 새로운 기억이 덮이기도 하고, 오래된 기억들은 최근의 다른 기억들에 의해 지워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가? 그렇지 않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변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정체성마저 바뀌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나’에게 설령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언제까지나 ‘나’ 인 것이다.

정체성이 의미하는 바를 ‘나다움, 나의 개성’ 이라고 한다면, 주체성이 무시될 경우 정체성도 의미가 없다.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성향을 개선하는 것 역시 자발적인 의지의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나 유전자 요법이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생긴 변화와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차이점이 있다면,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일어난 변화에 주체적인 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 정도이다.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약품이나 유전자 요법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온화한 성품으로 변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과학 기술의 도움을 선택한 것이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스스로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것도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1. 제시문 (가)와 (다)에서 밑줄 친 ‘선택’ 이 어떻게 다른지 기술하시오 (400 ~ 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
2. 제시문 (다)의 논지를 기술하고, 이 논지를 제시문 (가)와 (나) 모두를 논거로 활용하여 논박하시오. (1,100 ~ 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 출제기준표(인문계열 B형)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 출제기준표(인문계열 B형)

■ 출제 의도:

세종대학교의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여’라는 두 가지 큰 목표 아래 출제되었다. 이번 논술고사는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 텍스트 이해력 및 분석력, 논증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등의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라 논술고사의 모든 지문을 올해 고3 수험생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였다. 따라서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라도 응시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탁월한 접근성을 지닌다.

세종대학교는 학원 수강 등 별도의 사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험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6학년도 논술고사 대비 모의시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시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에 대한 정보를 수험생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 설명회를 통해서도 출제 의도와 문제의 유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세종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모의시험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 동일한 수의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 또한 모의시험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이것은 세종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효과적인 수험 준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이다. 세종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이해하고 답변을 궁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이것은 논술고사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되,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입시 준비를 위한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문항별로 보면, <문항 1>은 제시문 (가)와 (다)에 똑같이 등장하는 용어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이다. 이것은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의 문맥과 핵심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은 텍스트를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독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문항 2>는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외에, 논증에 대한 이해와 논증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다)를 논증적으로 분석하여, 논지와 논거를 밝힐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내용과 문맥을 갖는 제시문 (가)와 (나)에서 제시문 (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한 논거를 발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문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논증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

■ 출처:

- (가) “생명의 윤리”,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II>(미래엔)
- (나) “겨뻐만 리”,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II>(미래엔)
- (다) “생명 공학 기술과 인간의 정체성”,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상>(비상교육)

문항 구분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두 선택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술했는지 평가	100	150	500	
	표현력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평가	25			
	정서법	원고지 사용법을 포함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	25			
2번 대문항	이해력	핵심논지를 정확하게 기술했는지 평가	50	350		
	분석력	(가)를 논거로 활용	제시문에서 적절한 논거를 찾아 논박했는지 평가			75
		(나)를 논거로 활용	제시문에서 적절한 논거를 찾아 논박했는지 평가			75
	구성	단락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	50			
	표현력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지 평가	50			
	정서법	원고지 사용법을 포함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	50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 답안 예시(인문계열 B형)**

1. 제시문 (가)와 (다)에서 밑줄 친 ‘선택’ 이 어떻게 다른지 기술하시오. (400 ~ 500자)

제시문 (가)에서의 선택은 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을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사후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선택을 말한다. 만약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아서 유전학적 질병에 미리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그 부모는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의 선택은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선택으로 사실상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반면 (다)에서의 선택은 약물이나 유전자 요법 등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외모나 정신적 성향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선택으로, 주로 성품을 바꾸거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른 기호적 선택이다. 이는 도덕적 책임과 무관한 것이고, 순전히 자발적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다.

2. 제시문 (다)의 논지를 기술하고, 이 논지를 제시문 (가)와 (나) 모두를 논거로 활용하여 논박하시오. (1,100 ~ 1,200자)

제시문 (다)는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습이나 정신적 성향을 바꾸는 것은 자발적 의지의 선택인 경우, 즉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주체적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정체성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는 약물이나 유전자 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 즉 주체적 행동의 결과인 경우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것이 주체적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 (가)에서 보듯이 유전자 검사와 유전적 치료, 능력 강화제가 보편화된 사회라면 보다 완벽해지려는 ‘프로메테우스의 증동’은 펼쳐버리기 어려운 전염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증동에 전염되어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외모나 성격을 바꿀 경우 이런 선택을 자발적 의지에 따른 주체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의 사용이 주체적 결정인 한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다)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나)에서 이인국 박사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행각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친소주의자, 다시 친미주의자로 모습을 바꿨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행동으로, 누구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닌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주체성 있는 인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 자신의 모습이나 정신적 성향을 바꾸는 행동이 자발적 의지의 결과인 한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다)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런 변화에도 훼손되지 않는 정체성은 기껏해야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며, (다)에서 말하는 정체성이 이런 것이라면 그 주장은 진부한 것이 된다. 그러나 (다)에서 말하는 정체성이 인격의 동일성을 가리킨다면 과학 기술의 활용에도 주체성과 정체성의 훼손이 없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모습이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세태를 좇는 비주체적 선택이며, 설혹 이런 선택이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